

이 마음도리를 확고히 안다면 지금 금방 죽는대도 겁나지 않아

21면에서 계속

기자인 기자,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짝한 다 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듯이 모든 게 다 공부란 말입니다. 학교 공부만 공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모두들 수시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하나 자기가 해나가야지 누가 해 나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게 체크가 되는 거라, 자기가 감응이 오는 거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대로 돌아가면 자신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딱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해보지 않은 사람, 그냥 물색 없이 왔다 갔다 하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 '이거 뭐, 내가 힘이 없는데, 아이 내가 뭐 이런 일을...' 그냥 아예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코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석 아닌 목석이죠. 우리 유익 법만 취하고 사는 사람들, 좀 무의 법을 활용해보라 이겁니다. 마음으로써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익 중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서부터는 학교에서 공부 했으면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면에서 오고 가며 직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법도 한데 미리 잘못돼가지고 그걸 방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해보서 요런 일은 요렇게 되고 저런 일은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는 것을 못박아놓을 수 있는 대로 못박아놓고, 천천히 차근차근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오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차근차근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이익하지만 남도 이익하고 또 나라도 이익하고 모두가 이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입니까? 체험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나라 위태한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 기복으로만 그저 왔다 갔다 말만 모두 성하고 나 자신은 생각해보지 못하고 흥분하고 잘못한다 잘한다. 정도다 사도다 하고 비판하고 다니다보니까 자기는 영 돌아다볼 사이가 없는 거죠. 이리다 보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국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세계를 통일시킬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왜? 각각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연결이 된다면 죽이려고 단추를 누르지 않을 겁니다. 칼을 들이 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 죽이려고 하지 않고 불국토를 이룰 수 있게 우리 인간들이 대성황을 이룰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이끌고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여러분이 소련으로나 중국으로나 유럽으로나 어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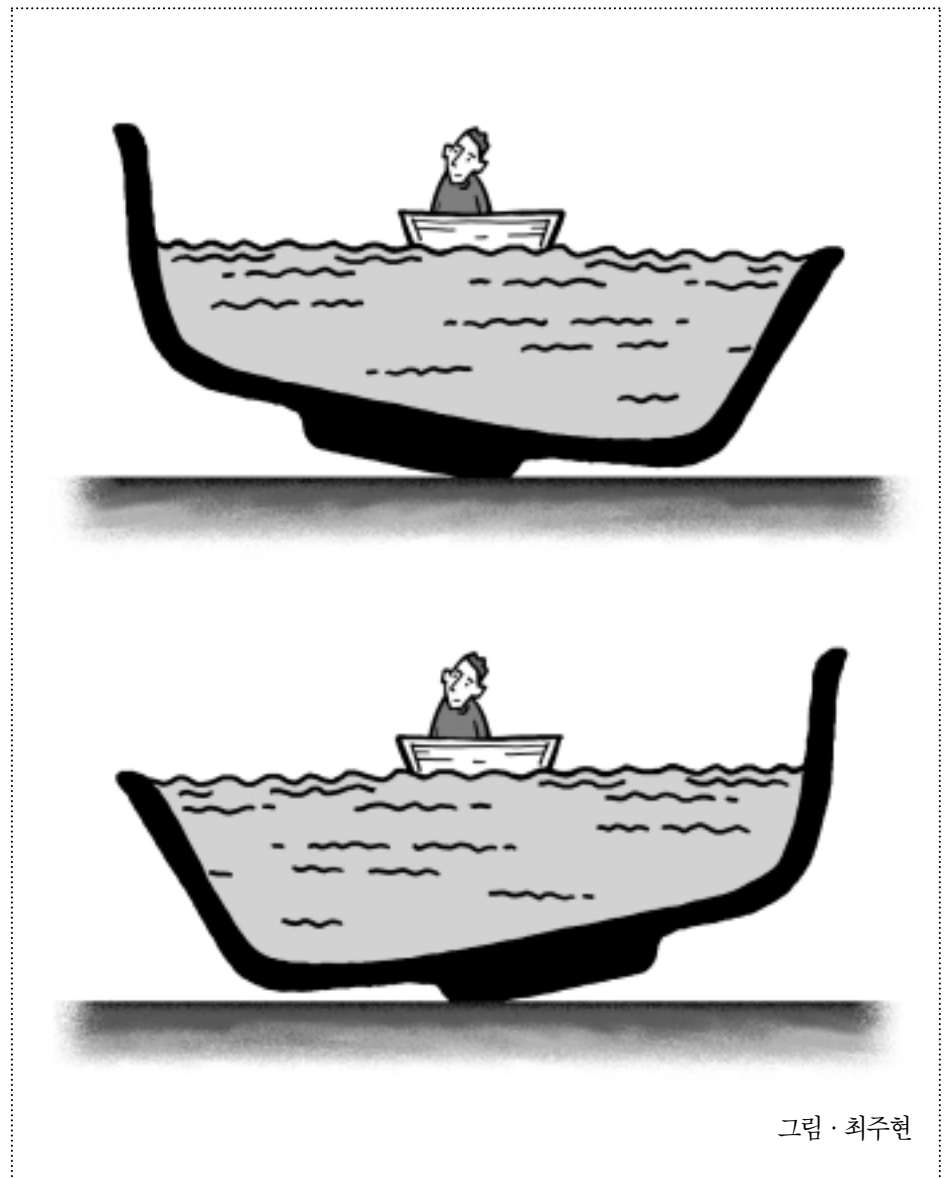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을 해가면서 탁탁 밀고 나가보세요!

니가 공부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백 년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할 때나 맛을 조금씩 본 겁니다. 남이 해줘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실질적으로 가르쳐줬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너 잘났다 그리고 해서 몸을 일들이 저질러진 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오는 분들만이라도 우리는 이 나라를 아주 융성하게 한 자리 올려놓을 수 있는

막론해놓고 마음을 던져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던져놓게 되면 그것이 다 돌아가게끔 돼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빨래를 아주 욕같이 해놓는데, 며느리가 아무리 따라서 하려도 욕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영 안 가르쳐주거든요. 죽을 때서야 '꼭꼭' 하고 죽어갑니다. 꼭 짜면은... 허허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그대로 있건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가 믿지를 않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믿지 않죠? 믿지 않기 때문에 용을 하지 못하죠? 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로 나오지 않죠? 실감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는 절망에 빠지는 수가 많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수도 많고 망하는 수도 많고, 이거는 말도 못하죠. 삶의 보람도 없고 그냥 허황되지만 하죠.

이 도리를 안다면 내일 죽고 지금 금방 죽는대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무슨 착잡하거나 또 허황되거나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몇한 거예요. 왜 그러냐? 금방 몸은 벗었으나 금방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

문입니다. 그걸 아시려면 오늘서부터는 체험을, 사는 데서 체험을 자꾸자꾸 하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말입니다. 대부분 남자분들은 나가서 일하면서 그 일하는 장소에서 해나가서 아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왜 미리 막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때에 미리 막아두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픈 걸 금방 낫게 해주지 않는 법도 있습니다. 또 이 몸을 웃을 벗기고 죽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들이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새 기계를 들여놓고 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들여놓은 기계 가지고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어. 밀려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다고 문을 닫게 되면 벌써 손해야. 그러니 이것을 한생각 내서 다시 설치하게끔 만들거나 기계를 다시금 똑같이 수 있게 조립을 하거나 한 생각 내면 웃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게끔 돼 있다 이거야. 돼 있는 연후에 가서 말만 피우면 되는 거라.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지. 주인의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라.

이렇게 떠날어줘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밥숟가락을 떠넣어 드려도 먹을 줄을 모른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는 마음 없이 그냥 그대로 대처해야 될 겁니다.

나는 아주 귀찮을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니는 회사에 무슨 큰 일이 생긴다면 큰 일이니까 아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 그대로 해보시면서 잘 굴러가면서 체험하면서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모두들 못하시니까 자기를 자기가 진짜로 믿게끔 만드십시오. 신념이 가게끔요.

여러분 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5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후원을 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전문지도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신심과 정성이 한국불교에 밑거름이 되고, 불자님들의 거룩한 보시는 아름다운 불국토를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이런일을 합니다.

- ▶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년2회 여름·겨울)
- ▶ 대한불교교사대학 운영
- ▶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 ▶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군·불교 포교 및 사찰행사 지원
-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모임 운영
- ▶ 찾아가는 법당(법회·불교학교) 개설 및 운영
- ▶ 연등축제 연희단 울동 기획 및 보급 등
- ▶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 개최

만인등참에 참여 바랍니다

● 만인등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행사입니다.

사찰이나 단체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 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 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1인 1만원 만인등참 후원

- 계좌번호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지로번호 : 7670909

※ 본회에서 같이 활동하실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신도회관 405호

TEL : (02)738-7860 FAX : (02)738-7863 www.burec.org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제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분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사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양성(유급)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20%할인

- 모집대상 :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지도교사
- 교육기간 : 불기2551(2007)년 3월 ~ 불기2552(2008)년 2월 (1년 과정, 여름·겨울 방학)
- 개강일 : 3월 22일 (목) 입학식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목 오후 7시~9시)
- 모집기간 : 3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문의전화 : 본대학 교무처 (대)(02) 739-4967 www.burec.org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계서판 이용)

불기2551년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

언제? 불기2551(2007)년 4월 15일 일요일 누가?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 모두 어떻게? 찬불가 한곡을 정하여 울동을 창작한 후 4월 7일까지 참가비 5만원과 함께 접수한다.

자세한 문사항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